

제4차 국가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전국자원봉사센터 공동과제 제안

네트워크
변화 확산
사회문제 성장
일상 행복
활성화
시민성 프로그램
협력 센터
확장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지역
중심 개발
구축 주도
인프라
관리자 참여
문화 기반 지원
시민



국가기본계획의 의미와 제4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4조). 그리고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9조). 이러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정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자원봉사를 **자발적인 민간의 운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과 제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장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에 맞는 다각적인 참여방식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연대와 화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와 이타적인 활동에 한정된 자원봉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참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개인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삶의 과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자원봉사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과 위상을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제4차 국가기본계획 33가지 과제 중 자원봉사센터의 공동과제¹⁾

국가기본계획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다루는 자원봉사 정책 세부과제를 3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전국의 센터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공동과제를 찾기 위해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센터가 함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실행계획(2024~2027)수립’을 위한 지역별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 공동과제²⁾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을 수렴해 다음의 세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 전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인 기후위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는 것

둘째

● 개인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여
자원봉사 관리방식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가치와 욕구를 존중하는
인정과 예우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

셋째

●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센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협력의 과업과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

이러한 3가지 방향이 전국의 자원봉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최유미 · 이은자 · 조철민 · 곽둘주, 2023.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실행계획(2024~2027) 수립 연구 보고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결과를 중심으로 제안글을 작성하였음.

2) 1-2-2 재난대응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1-3-2 자원봉사가치기반 사회적 인정방식의 다양화, 1-4-2 자원봉사 참여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다각화, 2-1-2 자원봉사관련 지침과 조례개정, 2-3-2 자원봉사관리자역량 및 사회적 위상강화, 3-2-1 생애맞춤형 자원봉사활성화, 3-2-2 ESG · 사회적 가치연대 강화, 3-3-1 대한민국자원봉사캠페인 및 브랜드 확산



1. 기후위기 대응 전국민 참여 활성화

#시대적과제동참 #자원봉사의힘 #참여확산

이 과제는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해결해야 할 지금 시기의 공동과제를 말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빈도뿐만 아니라 영향까지도 확대되어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재난 약자에 대한 돌봄 등 상시적 예방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에 빠른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활동은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통한 사회 전반의 기후 탄력성(Climote Resilience)³⁾을 제고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비롯한 참여 주체 모두의 기후변화 적응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기후위기, 감염병의 일상화 등 다각화된 재난재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차원의 활동을 추진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기후위기를 ‘사전예방’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기후취약계층’을 돌보는 차원의 자원봉사를 접목하는 시도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공동의 지향으로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의 참여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현장의 어떤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가?

전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현장의 접근방식으로 ‘시대적 과제 동참’, ‘자원봉사의 힘’, 그리고 ‘참여 확산’ 등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의 흐름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간에도 ‘안녕 캠페인’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경험들을 축적해 왔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자원봉사계의 대응 방식과 성과에 기반한 특유의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비롯한 여타의 환경은 다르지만, 함께 집중하는 방식은 몰입도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자원봉사활동이 있다면, 하나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소속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자원봉사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왜 늘 재난이 닥치고서야 급하게 대응에 나서게 되는지”, “좀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는지”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자원봉사센터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온 역량이 축적되었다는

3) 기후위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능력.

반증이자,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원봉사센터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의 역할을 부여받은만큼, 자원봉사계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접근이 요청됩니다. 책임만큼 권한도 요구하고 재난대응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비롯한 관련된 곳에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전 국민 기후위기 대응 참여는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시민 참여 홍보에서 효과적인 방식은 당위적인 메시지와 대규모 광고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부여와 효능감 있는 흐름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자원봉사 참여율의 점증적 또는 급격한 감소를 겪은 후, 다시금 참여율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4차 국가기본계획도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함께 '참여 확산'을 중점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다시금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양성을 촉진하는 자원봉사 관리

#다채로운자원봉사일감개발 #인정방식의다양화 #홍보방식의다각화

이 과제는 **참여주체의 다양성, 다양한 일감, 지역사회의 상황 등에 맞는 다각적인 센터의 업무체계를 말합니다.** 사회문제는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욕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기획이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봉사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 개발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중점과제일 것입니다. 또, 참여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활동에 대한 의미와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의 지향으로 자원봉사 관리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봉사 관리의 방향 전환을 제안합니다.

현장의 어떤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가?

다양성을 촉진하는 자원봉사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현장의 접근방식으로 **'다채로운 자원봉사 일감개발', '인정방식의 다양화', '홍보방식의 다각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자가 처한 상황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접근으로 잘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을 실천현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처한 상황과 욕구에 기반한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절히 유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봉사를 해야 하는,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 등의 유형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바쁜 현대인을 위한 틈새봉사, 시공간을 넘는 온라인봉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봉사, 휴면 봉사자를 깨우기 위한 손쉬운 활동, 생애주기 맞춤형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좀더 경주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활동을 찾고, 주민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활동의 영역을 함께 발굴하여 연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인정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 인정은 대부분 시간관리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다양하고 호소력 있는 인정방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여러 현장에서 몇 가지 방안들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인정과 예우는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증진과 감사 표현,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전적 방식의 인정에 대한 표준적인 입장 정리로부터, 전국의 현장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인정방식에 관한 조사와 방안들을 도출하는 공동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세밀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도 안되는 일’, ‘무료 노동력’과 같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언어나 관행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홍보 콘텐츠와 매체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정해져 있고, 신규자원봉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와 모집은 당위적 메시지와 기본정보 전달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자원봉사 스타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꼈다’는 식의 예시(modeling)를 통해 활동의 매력과 가치, 참여욕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상호 간에 자원봉사에 관한 자신의 선호와 경험을 교류하고, 스스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통로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도구·기술·방식을 통한 손쉬운 자원봉사 참여 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공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개별 자원봉사센터가 홀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전국 공동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3.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사회적 연대 강화

#연결과매개 #수평적협력 #관리자전문성

이 과제는 국가기본계획의 수행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관리자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최근 자원봉사센터는 역할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에 있어 운영 주도성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그리고 역할변화를 통해 사회적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어떤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현장의 접근방식으로 ‘연결과 매개’, ‘수평적 협력’, 그리고 ‘관리자 전문성’ 등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연결과 매개’에 기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영향력 확장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더 많은 주체들과 ‘연결’돼 있거나, 다른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매개’하는 주체가 지닌 영향력을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많은 지역사회에 지역복지,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과 같은 자원봉사와 이웃한 다양한 주민참여의 영역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들 영역의 단체나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일은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센터의 위상 제고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과제와도 직결됩니다.

둘째,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자원봉사 거버넌스 관행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함께, 자원봉사계가 정부·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⁴⁾ 수평적 협력은 그것이 옳다고 해서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민간주체인 자원봉사계가 주창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묵은 과제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와도 연관됩니다. 우선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가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롭게 요청되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실제 역할수행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관리자의 역량은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제고와도 직결됩니다. 매개와 연결,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역량외에도 다양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자원봉사가 만든 변화, 자원봉사자의 봉사경험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측정과 연구,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활동을 넘어서서, 목표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설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조직화 역량 강화가 요청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북돋우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조직화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량 강화는 일선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인 교육·훈련기능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과제로, 전국 공동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4) ‘수평적 협력’은 현 정부도 외교적 맥락에서 강조하는 지향임. “수직분업서 수평협업으로”...윤대통령, 한-베트남 협력 ‘질적 개선’ 의지(<https://www.dailian.co.kr/news/view/1246640>).



함께 꾸는 꿈과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제4차 국가기본계획의 과제를 함께 토론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센터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대와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 낸 과제는 자원봉사센터가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국 공동의 노력이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발전된 자원봉사의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공동과제를 연결하는 노력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변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관점과 접근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삶의 여정에는 동행인이 필요하듯,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을 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면 우리는 도전을 극복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꾸는 꿈과 목표는 더욱 힘을 얻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문화가 한층 성숙하고 활성화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이 글이 자원봉사센터 공동의 노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